

캔버스 스티칭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개발

홍 문 정 · 박 선 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박사수료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요 약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각되면서 각종 산업 폐기물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실천 과제가 되었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폐기물을 단순한 폐기의 대상이 아닌 순환과정에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패션산업은 유행이라는 특성상 산업 단계별로 매우 다양한 환경 폐해 물질들을 생산해내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용하기 전에 버려지는 폐기물들도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업사이클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를 높이는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인 방법과 표현 기법의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업사이클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업사이클이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 업사이클의 개념, 유형과 특징,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사례를 파악하였다. 의복 구조의 업사이클 방법으로 해체와 재조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디자인 표현 기법으로는 ‘캔버스 스티칭’을 차용하여 기법의 정의, 스티치 종류와 특징, 캔버스 스티칭을 활용한 디자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기법을 적용한 예술적인 심미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업사이클을 위한 아이템을 재고 의류와 폐원단으로 한정하여 업사이클 활용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적인 조형적 요소와 미적 요소로 나누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독창적인 디자인과 새로운 기법의 시사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실천적 순환 가치 체계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업사이클 패션디자인에 있어 디자인 표현 기법에 대한 다각도의 실험적인 연구가 연구자와 패션디자이너에게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해체와 재조합, 캔버스 스티칭, 재고 의류, 폐원단

*교신저자: 박선희, zenyul@ewha.ac.kr

접수일: 2022년 11월 8일, 수정논문접수일: 2022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6일

I. 서론

업사이클을 기반으로 얻어지는 디자인의 다양한 변화에 새로운 기법과 소재 개발을 조화시킨다면, 현대인이 추구하는 패션디자인의 심미적 아름다움을 지닌 독창성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패션산업은 경쟁적으로 새로운 소재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독특한 특성을 살려 새로운 감각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시대적 동향은 현존하는 세대와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자주 언급되고 있고, 이를 시각화하려는 연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패션산업은 자원과 폐기물 그리고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이후 환경문제와 자원 절약에 대한 관심과 이를 대하는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다양한 업사이클링 패션 제품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버려진 자원을 이용하여 만든다는 점에서 업사이클링 패션 제품에 대한 선입견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소비자가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연결된다. 이는 폐기물로 만들어져 품질이 나쁘거나, 생산과정에서 또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환경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Hong & Kim, 2014)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패션 자원의 합리적인 실천과 업사이클링 제품의 대중화를 위해 환경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경제성과 가용성을 지니며 또한 심미성이 높은 연구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고 의류와 폐원단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자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캔버스 스티칭 기법의 구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캔버스 스티칭 기법은 다양한 폐원단들을 엮어서 기존의 원단보다

독특한 표면 효과를 지닌 새롭게 재조합된 원단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표현 기법으로 독창성과 심미성이 높은 소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의복 구성에 있어서 해체와 재조합을 통한 의복의 재구성과 캔버스 스티칭 기법으로 디자인된 스티치를 조합하여 새롭게 디자인된 패션 작품 4점을 소개함으로써 진정한 폐자원의 순환 과정을 준수하고, 패션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유형과 표현 방법에 대한 고찰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사례들로 구성된다. 선행 연구를 통해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주제로 한 6편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내용과 본 연구와의 연관성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타당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주제로 한 패션디자인 사례로는 2014년부터 최근 2022년까지의 사례로 한정한다. 디자인 표현 기법으로 활용할 캔버스 스티칭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스티치 연구는 Leisure Arts(1997)에 근거하여 분류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의복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여 해체와 재조합하는 방법과, 폐원단 소재를 적용시킨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이다. 이론적 고찰과 작품 제작으로 구성되며,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위논문과 국내·외 전문 서적을 포함하여, 업사이클에 대해 관련한 문헌 자료와 시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업사이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사례들을 분석하고 업사이클된 사례들의 특징과 그리고 구성요소 등을 살펴본다. 둘째, 캔버스 스티칭에 관련한 문헌 자료와 시각 자료를 분석하고 캔버스 스티칭의 정의와 스티치 놓는 방법, 그리고 캔버스 스티칭의 스티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고, 이 기법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 고찰한다. 서적과 시각 자료, 웹사이트에 근거하여 캔버스 스티칭 사례를 분석한

다. 셋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업사이클의 요소를 기반으로 업사이클 아이템을 선정한다. 의복 기록을 통해 의복의 구조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체와 재조합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한 디자인을 구상한다. 넷째, 구상한 스티치 디자인은 앞선 업사이클 구상에 단계의 계획대로 디자인 재조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스티치 패턴을 의복 구조에 알맞게 봉제하여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작품 4점을 전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업사이클에 관한 고찰

1) 업사이클의 개념

업사이클을 활용한 디자인을 다루는 개념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개념으로, 사회, 환경, 윤리와 책임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Kook, 2014). 1960년대 미국과 유럽의 사회 문화 운동과 더불어 패션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은 1990년대로, 이 시기에 패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명시한 지속가능성 플랫폼과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규정의 확립이 이루어졌다(Thomas, 2020).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의 큰 흐름은, 한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와 과잉된 생산으로 인한 재고품과 버려진 의류로 인한 환경문제를 야기시켰다(Yu & Chun, 2020).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패션에 대한 수요는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21세기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에코 디자인, 그린 디자인, 지속가능 디자인을 포괄하는 개념인 업사이클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Choi, 2012). 업사이클은 소비되어 버려지는 단계에 놓인 제품을 버리지 않고 주기적

순환 체계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디자이너에게 무한한 창의적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2)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유형과 특징

본 연구에서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업사이클을 주제로 연구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Oh(2015)은 시대별 유형으로 그린 디자인, 에코 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구분하였고, Shin and Kim(2018)은 업사이클의 유형 특성을 재사용성, 재구성성, 재가용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Shu and Choi(2021)은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분류를 과거적 시점, 현대적 시점으로 분류하고 과거적 시점으로는 빈티지 패션, 업사이클 패션으로, 현대적 시점으로는 제로웨이스트와 다기능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Kim(2021b)은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디자인 표현 방법으로 접근하여 해체됨과 이어 붙이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Yu and Chun(2020)은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유형을 기법적으로 접근하여 리디자인(redesign), 리컨스트럭션(reconstruction), 핸드크래프트(handcraft)로 분류하였으며, Kim (2021a)의 연구에서는 업사이클을 활용한 디자인의 특성을 독창적 사고, 수공예적 기술, 기능적 업그레이드, 지역거점 생산이라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사례를 중심으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분석한 결과, 환경성, 심미성, 독창성, 가용성, 경제성의 5가지로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환경성은 친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은 업사이클 디자인이 될 수 없기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심미성은 디자이너의 가치와 감성이 담긴 특성으로, 기능만이 존재하는 제품이 아닌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말한다. 이는 수공예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수공예 기법을 사용하여 섬세한 크래프트적 감각으로, 고부가가치의 업사이클링 패션으로 완성된다. 독창성은 버려지거나 방치될

Table 1.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관련 선행 연구와 유형 분류.

선행 연구	유형 분류				
	환경성	심미성	독창성	가용성	경제성
Oh, Y. (2015).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upcycling fashion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	●	●
Shin, C. H., & Kim, J.-S. (2018). Characteristics of upcycled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Korea Design Forum, 23(2), 97-106. doi: 10.21326/ksdt.2018.23.2.009	●		●	●	●
Shu, L., & Choi, Y. (2021). Development of upcycle fashion design: analysis of the Re;code brand.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30(5), 803-817.	●		●	●	●
Kim, Y. J. (2021b). A study on upcycling fashion design using the components of a sui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	●	●	●
Yu, H., & Chun, J. (2020). Study of upcycled fashion design based on the properties of materials and techniqu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and Textiles, 44(5), 984-1003.	●	●	●		
Kim, S. H. (2021a). Zero-waste fashion design based on an eco-friendly paradigm: A focus on the utiliza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pants (Go, trousers) in the Joseon Dynas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	●	●	

수 있는 재료들을 믹스매치하거나 리메이드하여 재탄생 시키는 업사이클로 디자인의 핵심적 요소로, 제한된 생산에서 생기는 희소가치 특성이 독창적인 디자인 발현에 일조한다. 이에 따라, 재료가 한정된 재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원의 희소성과 동시에 제품의 희소성을 띠고 디자인의 희소성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중고의류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내고, 한정된 재료를 이용하여 디자인하는 것으로 어떠한 아이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이론을 내포하고 있다. 가용성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특성으로 관련된 세부 특성으로는 실용성, 안정성, 효율성, 기능성 등이 있다. 패션제품으로서 스타일뿐만 아니라 기능을 통한 실용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사용 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했는지, 또한 원자재 효율과 소재 적용이 적합한지에 관련된 특성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은 폐기될 위기의 재고 의류를 활용하여 절약되는 금전적인 이득과 동시에 자원 절약이라는 가치로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이다. 환경성을 기반한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인은 폐기물에 의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또는 폐기 전 단계에서 사용 주기를 연장하거나 독창적인 디자인 및 기획을 거쳐 새로운 가용성을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 절감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래프트적인 가치가 강조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유형은 독창적인 심미성을 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6편의 선행 연구의 업사이클 유형을 분석하면, 환경성과 독창성은 6편의 모든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으며 가용성은 5편, 경제성은 4편, 그리고 심미성은 3편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각각의 측면에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충실히 다루고 있었으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크래프트적인 기법을 패션에 접목시킨 심미적 고찰에 대한 연구는 다른 유형 연구에 비해 희소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3) 현대패션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사례

21세기 인류를 보편적인 발전전략을 함축하는 개념으로 친환경과 순환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환경보호에 대해 지각과 실천이 시작된 1990년대부터 윤리적 실천이 강조되는 현

재까지 패션산업에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기본적으로 환경친화적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으며, 시대 흐름에 따라 업사이클링 디자인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변모되어 왔다. 최근, 패션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중성 있는 미적 가치를 동시에 연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디자인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발전 과정에서 관찰될 수 있는 사례 중에서 재고 의류와 폐원단, 폐소재를 사용해 업사이클을 연구한 문헌과 함께 온라인 정보를 고찰한 결과, 패션산업에서 크게 각광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을 활용한 심미성 기반의 크래프트적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누 베를린 바이 카렌(Benu Berlin by Karen)이 있다. 카렌 예센(Karen Jessen)에 의해 탄생된 이 브랜드는 오래된 데님, 저지, 가죽 아이템을 개별 스트립으로 분할한 후 다시 연결하여 새로운 질감과 패턴을 정의하는 이른바 '재건 디자인 기법(reconstruction design technique)'을 통해 구상된 독창성과 심미성 높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Figure 1). 또 한 명의 독창성과 심미성을 지향하는 디자인 브랜드로 네덜란드 브랜드인 빅터 앤 롤프(Victor & Rolf)의 2016년 컬렉션에서 <Figure 2>는 전 시즌 사용했던 원단들을 재사용하였는데,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원단 조각들을 사용하고 얇은 명주 그물을 함께 꿰매고 단추

를 모아 폐기될 재고품을 활용하여 장식한 독창적인 의복으로 재탄생 시켰다. 이 브랜드는 매 시즌 컬렉션에서 업사이클링 의복의 예술적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어서 친환경 실천과 함께 고차원의 미적 감각 또한 제시하는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는 기능주의 미학과 함께 해체주의 패션을 지향하는 대표 디자이너이다. 그의 의복 구성의 형식을 살펴보면, 가장 기초적인 것을 없애고 독창적인 독특한 방식으로 재조합한다. 노출된 술기, 마무리 없는 단처리, 독특한 패턴과 재단을 통해 의복을 착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20 FW 시즌에 해체주의에 충실하면서도 레시클라(Recicla)를 전면에 내세워 업사이클을 아우르는 컬렉션을 선보였다. 레시클라는 이탈리아어로 재활용을 뜻하며,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을 뜻한다. 레시클라의 재료로는 파리의 빈티지 숭과 벼룩시장에서 폐기된 의류를 사용하였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가 자르고 이어 붙인 코트, 베스트, 드레스가 한데 섞여 고차원화된 심미성과 경제성 높은 독창적인 룩을 완성하였다. 그는 의복의 필수적 요건인 형태, 소재, 구조의 다양한 탐구와 생산과정에서의 새로운 기법을 선보임으로써 현재 패션산업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Figure 3). 이어서 섬유 생산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아틀리에 앤 리페어(Atelier & Repair)가 있다. 이 브랜드는



Figure 1. Benu Berlin by Karen.
From Gabardi. (2021).
<https://eluxemagazine.com.com>



Figure 2. Victor & Rolf.
From Rozas. (2018).
<https://fashionunited.es>



Figure 3. Martin Margiela.
From Martinez. (2019).
<https://fashionunited.es>



Figure 4. Atelier & Repair.
From Atelierandrepairs. (2019).
<https://www.instagram.com>

섬유산업의 사업가이자 디자이너인 마우리시오 도 남디(Maurizio Donaldi)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는 의류 업계의 과잉된 폐기물을 지적하며 패션의 창의성과 가용성을 연결하여 의류 제조업체와 협력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아프리카 등을 여행하며 수집한 중의류를 사용하며, 자체 공방에서 새로운 디테일을 가미한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Figure 4).

페트리샤 구지크(Patrycja Guzik)는 폴란드 출신의 디자이너로 2017년 국제 지속가능한 리드레스 디자인 어워드(Redress International Sustainable Design Award)에서 업사이클을 주제로 하여 제로웨이스트 방식의 패턴으로 섬유 폐기물을 줄이는 참신한 디자인으로 수상하였다. 구지크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재고 의류와 손상된 직물을 잘라 핸드 니팅 하는 기법을 통해 완전히 색다른 니트웨어를 선보이고 있다(Figure 5). 최근 각광 받고 있는 회화성이 뛰어난 다재다능한 디자이너로 그렉 로렌(Greg Lauren)이 있다. 로렌은 랄프 로렌(Ralph Lauren)의 하위 브랜드로 2016년 뉴욕 패션위크로 데뷔하였다. 최근, 그렉 로렌은 폴로·랄프로렌이 연상되는 클래식한 럭셔리 그런지 룩을 선보이고 있으며, 8,000여 개의 군용 텐트를 재활용하였는데, 군용 텐트와 직물, 담요, 테넬, 낙하산과 같이 내구성과 견뢰도가 높은 직물을 재활용하며, 군용 텐트에 달린 지퍼, 단추, 스냅, 버튼 등을 해체한 후 재조

합하고 조각낸 패원단을 꼬기, 엮기, 패치워크와 같은 핸드 크래프트 기법으로 독창성과 경제성 그리고 심미성 높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Figure 6). 케빈 제르마니어 (Kevin Germanier)는 영국 출신 디자이너로 센트럴 세인트 마틴(Central Saint Martins)을 졸업 후 2015년에는 버려진 구슬과 화려한 포일 원단을 사용한 작품으로 에코시크 디자인 어워드(EcoChic Design Award)에서 우승하였다. 화려하며 아름다울 수 있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새롭게 정의하는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그녀는 공장, 창고, 시장을 찾아다니면서 패원단과 폐소재를 수거한다. 수거한 원단과 비즈는 모두 업사이클링한 것으로 모든 재료를 남기지 않고 활용한다. 또한, 실패로 여길 법한 결과물에서도 숨은 가치를 찾아 스타일의 희소성과 자원 절약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제르마니어의 가장 최근 2022년 컬렉션에서는 버려지는 패브릭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패턴 방식과 아주 작은 단위의 재료라도 수공으로 작업하여 화려하고 감각 있는 심미성을 지닌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선보였다(Figure 7).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마지막 사례로 2020년 가장 최근에 설립된 네덜란드 기반의 패션 브랜드 피톨로지오(Fitolojio)이다.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피톨로지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을 사용하는 아이디어에서 브랜드를 시작하였다. 재



Figure 5. Patrycja Guzik.
From "All Star Winner". (2021).
<https://www.redressdesignaward.com>



Figure 6. Greg Lauren.
From Park. (2022).
<https://m.hankookilbo.com>



Figure 7. Kevin Germanier.
From Martain. (2022).
<https://www.vogue.fr>



Figure 8. Fitolojio.
From Projectcece. (2022).
<https://www.projectcece.com>

고품을 활용하여 해체와 조합 그리고 리디자인하여 의복의 수명 주기를 연장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리디자인을 통한 독특한 디자인 추구하며, 핸드크래프트 기법을 활용하여 꽃을 수놓아 표현하는 예술작품으로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 또한 큰 특징이다(Figure 8).

사례로 알아본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흐름은 첫째, 의복을 재활용하여 믹스 앤 매치하거나 제로 웨이스트 패턴으로 재탄생 시키는 독특한 조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베누 베를린 바이 카렌, 빅터 앤 롤프, 마틴 마르지엘라의 사례이다. 둘째, 활용하는 소재가 폐원단, 폐재료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활용 소재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재 혼합에 따른 새로운 디테일이 독창적인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카리나 로카 포르텔라, 아틀리에 앤 리페어, 페트리샤 구지크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디자인 표현 방법에 있어 그래픽 로렌의 사례와 같이 회화, 공예, 일러스트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고 엮음, 꼬임, 니팅과 같은 활용 기법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넷째, 최근에는 핸드크래프트 기법 활용이 이어지면서 제르마이어의 사례처럼 스타일의 희소성과 자원 절약의 가치를 내포한 가용성이 높으며 스타일 또한 독특한 패션디자인으로 변모하고 있다.

2. 캔버스 스티칭에 관한 고찰

1) 캔버스 스티칭의 정의

본 연구에서 차용한 캔버스 스티칭 기법은 모넨

형태의 캔버스 베이스 <Figure 9>를 사용하며, 수작업으로 스티치한다. 스티치하는 소재에 따라 크로스 스티치용 공에 바늘 <Figure 10>과 같은 용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캔버스 스티칭 기법은 스티치로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수의 특징과 가장 흡사하다. 캔버스 스티칭 기법은 선을 기본으로 표현하며 특히, 색상, 명도, 채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재질의 따른 광택과 질감의 변화까지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캔버스 스티칭의 베이스는 일정한 간격의 사각 개구부의 단위 면적의 크기가 자수용 베이스보다 크다. 캔버스 스티칭 베이스의 개구부는 지름 0.5mm부터 3cm 등 지름이 다양하며, 지름이 이보다 더 큰 것도 커스텀 제작이 가능하다. 캔버스 스티칭의 베이스가 되는 소재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가벼운 것을 선호한다. 플라스틱 베이스는 강성이 있으며 활용 사례로는 티슈 박스 커버, 작은 보석 상자, 핸드백 및 기타 장식용 물건과 같은 3차원 객체를 만드는 데 유용하다. 패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캔버스의 베이스 소재는 폴리에스터, 면, 린넨, 플라스틱, 러버, 알루미늄 등으로 다양하며 스티치 놓는 소재는 길고 얇은 가닥 형태로 준비된 것을 사용한다. 베이스 위에 실을 끼운 공에 바늘을 사용하여 캔버스의 개구부를 따라 스티치하며, 베이스 공간을 스티치로 채워 패턴 디자인을 만든다. 패턴 디자인은 각종 문양, 문자, 회화적 요소까지 스티치로 표현 가능하다(Leisure Arts, 1997).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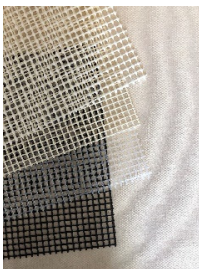


Figure 9.
Canvas stitching base.



Figure 10.
Craft needles for cross stitch.



Figure 11.
Stitch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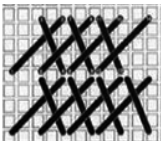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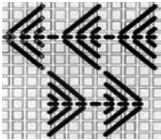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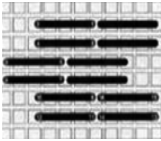
근에는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바탕직이 개발되고 스티치 놓을 소재가 다채로워지면서 원사나 소모사뿐만 아니라 가죽과 같은 동물성 소재와 마와 같은 식물 소재, PVC(Figure 11)와 같은 인공 합성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Hong, 2020). 뿐만 아니라 버섯 가죽, 선인장 가죽과 같은 생분해 친환경 소재 등으로도 스티치할 수 있어 소재를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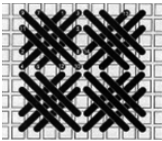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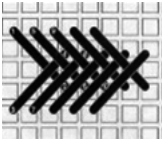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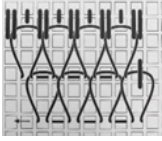
2) 캔버스 스티치의 종류와 특징

본 연구에서는 패원단을 긴 가닥으로 만들어 캔버스에 스티치 놓는 방법에 집중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캔버스 스티칭 기법의 대표적인 스티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플라스틱 캔버스 스티칭 기법 사진인 「Plastic Canvas Stitch Dictionary」(Leisure Arts, 1997)에 따르면 플라스틱 캔버스에 쓰이는 스티치 기법의 종류를 113가지로 소개하고 있다(Hong, 2020). 또 다른 스티치 기법 관련 서적들은 살펴본

결과 캔버스 스티칭의 스티치는 다수의 스티치를 자주 기법의 스티치 종류를 차용하고 있었다. 캔버스 스티칭의 스티치 종류 중 주로 많이 사용되는 스티치 37종 가운데 스티치의 형태가 유사한 계열로 8종의 그룹으로 묶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알제리안 스티치(algerian stitch)의 응용 스티치 4종류로 직선 스티치로 구성되며, 계단형 모양의 패턴을 형성한다(Figure 12). 애로헤드 스티치(arrowhead stitch)의 응용 스티치 5종류는 테두리를 만들거나 패턴 사용하는 화살표 형태의 스티치이며(Figure 13), 브릭 스티치(brick stitch)의 응용 스티치 3종류는 같은 개구부가 행이거나 엇갈린 개구부의 행을 형성하여 스티치 놓는다. 그리고, 고블랭 스티치(gobelin stitch)의 응용 스티치 3종류는 브릭 스티치의 같은 계열로 가로 또는 세로 행의 기본 직선 스티치이며, 두 개 이상의 가닥으로 스티치 놓는다(Figure 14). 크로스 스티치(cross stitch)의 응용 스티치 6종류는 두 개의 대각선으로 구성되어

Table 2. 캔버스 스티치의 종류와 특징.

기본 스티치	응용 스티치	특징
 <p>Figure 12. Algerian stitch. From Leisure Arts, (1997), p. 2.</p>	Algerian eye stitch Algerian star stitch Algerian filling Algerian plaited	계단형 모양을 형성하는 직선형의 스티치로 구성된다. 계획된 디자인에 따라 여러 색상의 긴 가닥을 사용할 수 있다.
 <p>Figure 13. Arrowhead stitch. From Leisure Arts, (1997), p. 3.</p>	Arrowhead stitch Byzantine stitch Cashere basic. Cashere condensed Flat stitch	두 가닥의 직선형 스티치가 연결되어 화살표 모양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화살표 스티치는 테두리를 만들거나 패턴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스티치는 수평으로 스티치하여 쉽게 지그재그 패턴을 형성할 수 있고 또한, 곡선 응용에도 용이하다.
 <p>Figure 14. Brick stitch. From Leisure Arts, (1997), p. 5.</p>	Brick stitch Parisian stitch Parisian padded Gobelin slanting Gobelin straight Gobelin encroaching	더블의 가닥으로 스티치를 놓을 경우, 4개의 가닥을 걸쳐 스티치를 놓아 엇갈린 행을 형성한다. 또한, 고블랭 스티치는 기본의 직선형 스티치로 두 개 이상의 긴 가닥으로 만들며, 스티치는 가로 또는 세로의 행으로 스티치를 놓을 수 있다.

기본 스티치	응용 스티치	특징
 <p>Figure 15. Cross stitch. From Leisure Arts. (1997). p. 7.</p>	<p>Cross bound stitch Cross alternation Cross irregular Cross long legged Cross stitch smyrna Cross stitch tied</p>	<p>두 개 이상의 대각선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닥 하나당 하나의 교차점이 있으며, 그만큼 상단 스티치의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스티치 놓은 모든 스티치는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어 만들어진다.</p>
 <p>Figure 16. Fern stitch. From Leisure Arts. (1997). p. 10.</p>	<p>Fern stitch Fern open variation Fern basic variation</p>	<p>가장자리에서 동일한 행의 개구부에서 계획된 중앙 개구부로 스티치를 놓아 연속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p>
 <p>Figure 17. Herringbone stitch. From Leisure Arts. (1997). p. 14.</p>	<p>Herringbone stitch Herringbone six trip Herringbone square. Woven stitch</p>	<p>기울어진 모양의 스티치를 교대로 배열한다. 스티치 패턴은 각 스티치가 하나의 수평의 가닥 두 개 이상의 수직 가닥으로 스티치를 놓을 수 있다.</p>
 <p>Figure 18. Rhodes stitch. From Leisure Arts. (1997). p. 20.</p>	<p>Rhodes stitch basic Rhodes diagonal Rhodes stitch half Rhodes octagon Rhodes stitch star</p>	<p>세로 행을 따라 스티치 놓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중앙으로부터 펼쳐진 형태로 스티치를 놓는다. 스티치를 놓는 방향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스티치 해야 그림과 같은 패턴을 만들 수 있다.</p>
 <p>Figure 19. Lace Stitch. From Leisure Arts. (1997). p. 16.</p>	<p>Lace Stitch Lace Chain Stitch Loop Stitch Turkey loop Stitch</p>	<p>레이스 스티치의 패턴은 니트의 니팅 모양과 흡사하다. 테이프의 첫 번째 줄은 직선으로 놓으며, 스티치 아래에서 뿔 수를 둔 개구부를 통해 긴 가닥을 스티치하여 형성된다. 이전 루프 행과 뿔 수가 같은 개구부를 통해 스티치를 계속한다. 또한 항상 왼쪽 방향으로 스티치를 놓는다. 루프 스티치는 긴 가닥을 동일한 뿔 수를 가진 개구부를 통과하여 캔버스 위아래로 가닥 스티치하며, 다음 가닥 바로 아래 가닥을 가로지르는 잠금 스티치가 이루어지도록 스티치를 놓는다.</p>

Leisure Arts. (1997)

있으며, 스티치 놓는 가닥 하나 당 하나의 교차점이 있다(Figure 15). 편 스티치(fern stitch)의 응용 스티치 3종류는 가장자리에서부터 행 또는 종이 동일한 중앙 개구부로 스티치를 놓는다(Figure 16). 헤링본 스티치(herringbone stitch)의 응용 스티치 4종류는 기울어진 스티치를 수평과 수직 교대로 배열하여 스티치 한다(Figure 17).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펼쳐진 모양으로 스티치되는 로데스 스티치(rhodes

stitch)의 응용 스티치 5종류이다(Figure 18). 마지막으로 실 가닥이 동일한 구멍을 통해 바늘 위의 개구부를 뚫고 캔버스 베이스의 위와 아래로 스티치를 놓는 레이스 스티치(lace stitch)와 그 응용 스티치 4종류가 있다(Figure 19).

캔버스 스티칭의 스티치의 종류를 스티치의 형태적인 유사성으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특징을 <Table 2>로 제시한다.

3) 캔버스 스티칭을 활용한 디자인 사례

캔버스 스티칭 기법은 크래프트적인 요소가 강하여 섬유 작가와 공예 작가들의 작품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으로도 흥미의 요소와 스킬이 향상되는 성취의 요소가 있어, 학생 교육자료로 적합하다. 또한, 핸드메이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D.I.Y가 견고해짐에 따라 캔버스 스티칭 기법을 활용해 제작된 작품들 또한 실용적인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기법을 정확히 정의의 내리고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정리해 놓은 문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패션산업에서 캔버스 스티칭 기법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으나, 분명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는 것으로, 현재 사례들을 살펴보고 응용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캔버스 스티칭 기법을 활용한 사례로 인테리어 소품인 컵 받침(Figure 20)과 티슈커버(Figure 21)가 있으며, 패션 소품 사례로는 핸드백 제작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Figure 22). <Figure 23>의 핸드백은 본 연구자의 캔버스 스티칭 기법에 대한 이전의 연구 작품이다. 이 핸드백은 색면 추상 회화 작가인 마크 로스코의 회화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로스코 작품의 숭고함과 색상의 중첩에서 느껴지는 매혹적인 면을 스티치 패턴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캔버스 스티칭의 스티치를 여러 겹으로 중첩하여 입체적으로 형성된 스티치는 질감에서 느껴지는 촉

감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II. 작품제작 및 해설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디자인 기획 단계부터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사이클 아이템의 해체와 재조합의 설계가 환경적이고 독창적인 업사이클 유형에 직결되는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방법적 모색으로서 해체와 재조합을 조건으로 하여 의복의 외부적, 내부적 특징을 다각적으로 실험한다. 이와 같은 외부적, 내부적 의복의 특징을 반영하여 업사이클 의복의 디자인 발상 방법으로는 외부적, 내부적 구조 특징을 가용성이 탁월한 형태로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 디자인 발상에 중요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형태를 재조합하는 요소와 함께 캔버스 스티칭 기법을 활용하여 의복의 형태를 새롭게 구성해 가는 크래프트적인 디자인을 연출하고자 한다. 첫째, 형태를 기본으로 한 디자인 발상의 전개는 의복 해체 작업을 통해 외부적, 내부적 형태의 특징을 찾아내어 믹스 앤 매치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전이적인 작품을 전개하였다. 둘째, 캔버스 스티칭을 통한 조형 사고 방법을 선적 요소로 스티치하여 면을



Figure 20. Plastic canvas, coasters.
From Leisure Arts. (1997). p. 42.



Figure 21. Plastic canvas, tissue box cover.



Figure 22.
Kit Large Plastic canvas bag.
From handibrand.
From Handibrand. (n.d.).
<https://handibrand.gr>



Figure 23.
Plastic canvas, handbag.
From Hong. (2020). p. 114.



Figure 24.
'JK.1'. Jacket.



Figure 25.
'JK.2'. Jacket.



Figure 26.
'JK.3'. Jacket.



Figure 27.
'SW'. Sweater.

이루는 발상으로 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디자인 발상을 통해 단순히 재활용하는 디자인 개념에서 벗어나 해체와 재조합의 사고 개념에 입각하여 캔버스 스티칭 기법을 활용해 미적 가치를 지닌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함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업사이클 패션 작품을 얻기 위하여, 업사이클하고자 하는 아이템, 재킷 3벌 <Figure 24>,

<Figure 25>, 그리고 <Figure 26>과 스웨터 1벌 <Figure 27> 그리고, 버려진 재킷 조각을 수집한다. 그리고, 캔버스 스티칭의 베이스 용도로 쓰일, 캔버스 소재로는 사용 후 폐기된 논슬립 패드와 스티치를 놓을 수 있도록 패원단을 실타래 형태로 만들어 준비한다. 업사이클 아이템의 분류를 위해 재킷 'JK.1', 'JK.2', 'JK.3', 스웨터 'SW' 그리고 버려진

Table 3. 작품 계획표.

작품	발상의 원천	아이템	업사이클 방법	소재 기법	소재	색채	디자인
I	 Figure 28. JK.1, JK.2.	JK.1 JK.2	deconstruction & reconstruction	canvas stitching	Woolen fabric, Wool fiber, Variety of polyester, Rubber		 Figure 29. Flat sketches.
II	 Figure 30. SW, JK.3, JP.	SW JK.3 JP	deconstruction & reconstruction	canvas stitching	Woolen fabric, Wool fiber, Variety of polyester, Rubber		 Figure 31. Flat sketches.
III	 Figure 32. JK.3, JP.	JK.3 JP	deconstruction & reconstruction	canvas stitching	Woolen fabric, Wool fiber, Variety of polyester, Rubber		 Figure 33. Flat sketches.
IV	 Figure 34. JK.3, JP.	JK.3 JP	deconstruction & reconstruction	canvas stitching	Woolen fabric, Wool fiber, Variety of polyester, Rubber		 Figure 35. Flat sketches.

Table 4. 작품 제작 과정.

작품	과정	제작 방법	제작 과정 이미지
I	아이템 선정	업사이클 패션디자인을 수행할 의복을 선정한다.	 <p>Figure 36. JK.1, JK.2, Jacket.</p>
II	기록하기	선정한 아이템의 각 의복의 외부적, 내부적 특징 파악하기 위해 패턴의 치수를 모두 측정하여 기록한다.	 <p>Figure 37. Jacket, note measurements. Captured by the author. (March 25, 2020)</p>
III	해체하기	업사이클에 활용할 해당 의복의 기록을 바탕으로 의복의 디자인된 특성과 의복 구조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체 작업을 한다.	 <p>Figure 38. Jacket, deconstruction.</p>
IV	디자인 구상	해당 의복의 사용할 부분을 도식화에 표시하고, 스티치 디자인을 놓을 부분을 기록해 둔다.	 <p>Figure 39. JK.1, JK.2, design idea. Captured by the author. (April 10, 2020)</p>
V	캔버스 스티칭	구상 한 스티치 디자인을 형태에 맞게 캔버스 패턴을 자르고 캔버스 개구부를 따라 계획된 종류의 스티치를 놓는다.	 <p>Figure 40. Stitch design.</p>
VI	재조합	디자인 구성 단계에서 계획한 데로 디자인 재조합을 수행한다.	 <p>Figure 41. Design reconstruction.</p>
VII	봉제	디자인한 스티치가 의복의 패브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봉제한다.	 <p>Figure 42. Work I. sewing.</p>

재킷 조각 의류를 ‘JP’로 명칭한다.

작품 계획은 작품별로 분류하고 <Table 3>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작품 제작 과정을 7단계로 분류하고 <Table 4>로 제시하였다.

2. 작품 및 해설

작품 I 은 업사이클링 디자인 방법 중에서 해체하기와 재조합 그리고 캔버스 스티칭 기법을 활용하여 디자인 개발한 베스트 아이템이다. 업사이클에 사용한 재킷은 레코드 재킷 2개 JK.1, JK.2로 선정하여 각 재킷의 외부적, 내부적 특징 파악하기 위해 패턴을 모두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디자인 구상 과정에서 아이템의 사용할 부분을 도식화에 표시하고(Figure 43) 캔버스 스티칭 기법으로 스티치 놓은 패턴을 적용한 부분을 기록해 둔다(Figure 44). 작품 I의 스티치는 디자인 구상 한 형태에 맞게 캔버스 패턴을 자르고 캔버스 개구부를 따라 계획된 스티치를 놓았다. 스티치 디자인은 총 5개로 CS.1, CS.2, CS.3, CS.4, CS.5로 명칭하고 있다(Figure 45). 스티치 종류는 브릭 스티치와 페르시안 스티치를 놓았다(Figure 46). 이와 같이 디자인 구성 단계에서 계획한 재조합을 수행하여 업사이클한 의복의 특징과 새로이 디자인한 스티치 소재를 반영하여 재조합한다.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디자인한 스티치가 의복의 패브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봉제하여 완성하였다(Figure 60). 작품 I은 재킷 형태의 구조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여 재킷형 베스트를 구상하였다. 베스트 앞면 오른쪽과 왼쪽에 서로 다른 JK.1, JK.2 재킷을 재조합 하여 조형적 유니크함을 강조하였다. 캔버스 스티칭의 디자인 스티치는 일정한 형태의 스티치 패턴을 표현할 수 있는 브릭 스티치, 페르시안 스티치, 편 스티치로 깔끔하게 스티치를 놓아 캔버스 스티칭 기법 표현의 특징 중 장식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미적 효과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작품 II는 업사이클 아이템과 업사이클 하고 남은 부분들을 제로 웨이트 방법을 적극 활용한 작품이다. 업사이클 아이템으로 스웨터 1개 SW, 작품 I에서 사용하고 남은 JK.2의 소매와 업사이클 하고 남은 부분인 JP중 소매를 선정한다. 스웨터 SW의 의복의 특징 파악하기 위해 패턴의 치수를 모두 측정하여 기록하고, 디자인 구상 과정에서 선정한 아이템들의 사용할 부분을 도식화에 표시한다(Figure 47). 이에 따라 스웨터 SW의 몸판과 재킷 JK.2 소매를 조합하였고, JP의 소매의 패턴을 펼쳐 스웨터 하단에 조합하여 독특한 디자인을 강조하였고, 스웨터 SW에서 해체한 소매는 머플러 형태로 재단한 캔버스 스티칭 디자인을 조합해 업사이클한 머플러를 디자인하였다(Figure 48). 그리고 캔버스 스티칭 기법으로 스티치 놓은 패턴을 적용한 부분을 선정하고, 스티치 놓은 스티치 종류를 기록해 둔다(Figure 49). 디자인 구상한 작품 II의 스티치 디자인은 구상 한 곳의 형태에 맞게 캔버스 패턴을 자르고 캔버스 개구부를 따라 계획된 브릭 스티치와 페르시안 스티치를 놓았다(Figure 50). 스티치 디자인은 총 3개로 CS.1, CS.2, CS.3으로 명칭 하였다. 이어 붙인 스웨터의 소매 부분의 외부로 노출시켜 봉제하여 장식적인 표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디자인 구성 단계에서 계획한 재조합을 수행하며 업사이클한 의복의 특징과 새로이 디자인한 스티치 소재를 반영하여 업사이클링 하였다.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디자인한 스티치가 의복의 패브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봉제하여 완성하였다(Figure 60). 작품 II는 스웨터와 재킷의 구조적 특징을 해석하여, 버려진 재킷 조각 JP 소매가 스웨터 SW의 몸판과 재조합되어 몸판이 일부를 형성하게 되었고, 스웨터 SW의 소매가 머플러가 되는 전이적인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 캔버스 스티칭의 디자인 스티치 중 머플러의 CS.3의 브릭 스티치 응용은 일정한 스티치 형태를 벗어나 스티

칭의 개구부 땀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스티칭으로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스티치를 놓았다. 이에 따라서 스티치로 사용한 긴 가닥의 울퉁불퉁한 소재 특징이 한결 질감 있게 표현되어 캔버스 스티칭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크래프트적인 미적 효과가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작품 III은 업사이클링 디자인 방법 중에서 해체하기와 재조합 그리고 캔버스 스티칭 기법의 장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디자인을 전개한 작품이다. 작품 III은 재킷 1개 JK.2와 업사이클 하고 남은 부분인 JP 재킷의 일부분인 JP로 아이টে를 선정하였다. 각 아이테의 외부적, 내부적 특징 파악하기 위해 패턴을 모두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디자인 구상 과정에서 아이테의 사용할 부분을 도식화에 표시하고 캔버스 스티칭 기법으로 스티치 놓은 패턴을 적용한 부분을 기록해 두었다(Figure 51). 이에 따라 JK.3의 재킷 길이를 다시 구성하고, 라펠과 JP.1의 라펠을 겹쳐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디자인을 구상하였다(Figure 52). 캔버스 스티칭 디자인은 재킷의 오른쪽 앞면 어깨선부터 시작하여 밑단에 이르기까지 CS.1으로, 왼쪽 앞면은 어깨선부터 웰트 포켓까지 CS.2에 위치한다. 재킷의 왼쪽 소매의 일부분에는 CS.3 그리고, 뒷면은 양쪽 어깨부터 밑단까지 전체적으로 CS.4을 위치하도록 하였다(Figure 53). 작품 III의 스티치 디자인은, 구상 한 형태에 맞게 캔버스 패턴을 자르고 캔버스 개구부를 따라 계획된 스티치를 놓았다. 스티치 디자인은 총 3개로 브릭 스티치와 편 스티치 그리고 브릭 스티치를 기본으로 스티치 놓는 개구부의 스티치 땀수를 자유롭게 변형한 스티치로 긴 스티치 놓은 긴 가닥을 늘어트려 입체적인 형태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왼쪽 어깨 부분은 타레 장식으로 꾸몄다(Figure 54). 이와 같이 디자인 구성 단계에서 계획한 재조합을 수행하여 새로이 디자인한 업사이클한 의복의 특징과 스티치 디자인을 반영하여 재조합하였다.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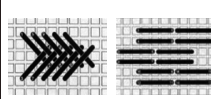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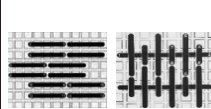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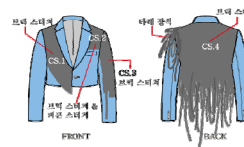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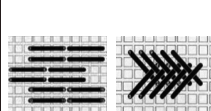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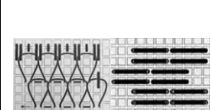
한 스티치가 의복의 패브릭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봉제하여 완성하였다(Figure 61). 작품 III은 재킷의 길이가 짧은 여성 블레로 재킷의 형태로 레이어드한 라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캔버스 스티칭의 디자인 스티치 중 재킷 소매의 CS.3의 스티칭 색상은 포인트 색상으로 표현하였고, 앞면 CS.1 뒷면 CS.4에 사용한 브릭 스티치 응용 형태는 일정한 스티치 형태를 벗어나 스티칭의 개구부 땀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스티칭으로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스티치를 놓았다. 이에 따라, 스티치된 색상은 그라데이션 효과로 보이도록 엮임에 의해 형성되었고, 어깨 타레 장식이 더해져 시각적으로 페인팅 그림과 같은 질감의 미적 효과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작품 IV는 업사이클링 디자인 방법 중에서 해체하기와 재조합 과정이 가장 복잡하게 이루어진 작품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캔버스 스티칭의 스티치 디자인이 가장 구조적으로 전개된 작품이다. 작품 IV는 작품 III의 JK.3에서 업사이클하고 남은 부분과 버려진 JP의 재킷 조각 윗부분의 앞면과 뒷면이 남겨져 있던 것으로 아이টে를 선정하였다. 각 아이테의 외부적, 내부적 특징 파악하기 위해 패턴을 모두 측정하여 기록하였고, 기록을 바탕으로 해체하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수행하며, 이 과정 중에 추가로 필요한 기록할 수 있었다. 디자인 구상 과정에서 아이테의 사용할 부분을 도식화에 표시하고 캔버스 스티칭 기법으로 스티치 놓은 패턴을 적용한 부분을 기록해 두었다(Figure 55). 이에 따라, 재킷 JK.3의 아랫부분 그리고, JP의 라펠과 몸판의 앞면과 뒷면의 일부분을 새로이 재단하였고, 앞면은 직선, 뒷면은 부드러운 곡선의 라인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재킷 형태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있어야 하지만 탈락되고 없는 옆선 부분과 앞섶과 뒷섶 부분에 캔버스 스티칭 디자인을 조합하였다(Figure 56). 캔버스 스티칭 디자인이 위치하는 곳은 JK.3의 앞면 CS.1과 뒷면

CS.2 그리고, JP와 조합된 부분인 CS.3과 CS.4로 디자인하였다. 작품 IV의 스티치 디자인은 구상한 곳의 형태에 맞게 캔버스 패턴을 자르고 캔버스 개구부를 따라 계획된 스티치를 놓았다(Figure 57). 스티치 디자인은 총 5개로 페르시안 스티치와 레

이스 체인 스티치 그리고, 브릭 스티치, 고틀랭 스티치, 레이스 체인 스티치로 조합하였고, 브릭 스티치로 스티치 놓아 디자인하였다(Figure 58). 이와 같이 디자인 구성 단계에서 계획한 재조합을 수행하며, 업사이클한 의복의 특징과 새로이 디자인한

Table 5. 개발 작품 4점의 디자인 개발 과정.

작품	업사이클 위치	디자인구상	스티치 적용 위치	스티치 종류
I	JK.1 ■ 업사이클 부분 JK.2 ■ 업사이클 부분 	 Figure 44. Design idea. Captured by the author. (October 02, 2022)	 Figure 45. Apply stitch design. Captured by the author. (October 02, 2022)	 Figure 46. (L)Ferret stitch, (R)Brick stitch. From Leisure Arts. (1997). (L)p. 10, (R)p. 5.
II	JK.3 ■ 업사이클 부분 JP ■ 업사이클 부분 JK.2 ■ 업사이클 부분 Camo-□ ■ UP ■ JG.3 ■ UP ■ 	 Figure 48. Design idea. Captured by the author. (October 02, 2022)	 Figure 49. Apply stitch design. Captured by the author. (October 02, 2022)	 Figure 50. (L)Brick stitch, (R)Ferret stitch. From Leisure Arts. (1997). (L)p. 5, (R)p. 5.
III	JK.3 ■ 업사이클 앞 부분 JP ■ 업사이클 뒷 부분 	 Figure 52. Design idea. Captured by the author. (October 02, 2022)	 Figure 53. Apply stitch design. Captured by the author. (October 02, 2022)	 Figure 54. (L)Brick stitch, (R)Ferret stitch. From Leisure Arts. (1997). (L)p. 5, (R)p. 10.
IV	J2 ■ 업사이클 앞 부분 JK.3 ■ 업사이클 앞 부분 	 Figure 56. Design idea. Captured by the author. (October 02, 2022)	 Figure 57. Apply stitch design. Captured by the author. (October 02, 2022)	 Figure 58. (L)Brick stitch, (R)Lace stitch. From Leisure Arts. (1997). (L)p. 5, (R)p. 16.

스티치 소재를 반영하여 재조합한다.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디자인한 스티치가 의복의 패브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봉제하여 완성하였다 (Figure 62). 작품 IV는 구조적으로 슬림 한 핏과 레이어드된 스티치 디자인을 강조하였다. 캔버스 스티칭의 스티치가 5종류로 작품 4점 중에서 스티치가 가장 다양하여 각 스티칭의 형태는 조화로우며 색상은 다채롭게 표현되었다. 특히 레이스 체인 스티치의 형태가 입체적인 미적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개발한 작품 4점의 디자인 개발 과정을 정리하여 <Table 5>로 제시하였으며, 그 조형적 요소와 미적 요소는 <Table 6>으로 제시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산업 발전에 의한 다량의 폐기물은 환경오염과 심각한 기후 변화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어 현시대를 사는 우리가 인지해야 할 사회문제이다. 패션산업에서 사회적 캠페인과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업사이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업사이클을 활용한 작품들은 점차 예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표현 방법인 환경성, 독창성, 가용성, 경제성 그리고 심미성을 응용한 디자인이 패션의 다양성을 띠

Table 6. 개발 작품 4점의 조형적 요소와 미적 요소.

작품	이미지	조형적 요소	미적 요소
I	 Figure 59. (L)front, (R)back	재킷 형태와 구조적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여 재킷형 베스트로 재킷 구조의 외부와 내부를 전이하였다. 구조 전이가 실용적으로 재조합된 것이 특징이다.	캔버스 스티칭 기법 표현의 특징 중 스티치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일정한 패턴에 중점을 두었으며 효율성과 기능성 또한 갖추고 장식적인 미적 효과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II	 Figure 60. (L)front, (R)back	재킷 소매가 스웨터의 몸판과 재조합되어 몸판이 일부를 형성하게 되었고, 스웨터의 소매가 머플러로 전이되었다. 해체와 전이가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전이된 의복 구조가 효율성과 기능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스티치 소재의 울퉁불퉁한 소재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스티치의 땀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스티치 종류를 사용하였으며, 질감 있게 표현되어 크래프트적인 미적 효과가 크게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III	 Figure 61. (L)front, (R)back	해체 작업보다는 조합 형태에 중점을 두었으며 캔버스 스티칭 기법의 가장 어려운 스킬이 반영되었다. 재킷과 캔버스 스티칭이 다각적으로 조합된 안정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일정하게 스티치한 부분과 일정한 스티치 형태를 벗어나 자유롭게 스티치를 놓은 부분이 조화롭다. 색상이 그라데이션되는 효과가 형성되었고, 장식이 시각적으로 페인팅 그림과 같은 질감의 미적 효과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IV	 Figure 62. (L)front, (R)back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캔버스 스티칭의 스티치가 가장 구조적으로 전개된 작품이다. 구조적으로 레이어드된 스티치가 의복의 기능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스티치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며 각 스티치의 형태는 조화롭고 색상은 다채롭게 표현되었다. 특히, 레이스 체인 스티치의 형태가 입체적인 미적 효과를 발현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며 확대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지구환경을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최근 사회적, 환경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업사이클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효율적으로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패션디자인 개발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다.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요소와 미적 요소로 나누어 패션디자인 방법적인 특성과 기법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새로운 기법의 시사점은 패션산업에서 실천적 순환 가치 체계를 장려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사이클 요소는 아이템을 활용하기 위한 의복의 구조의 이해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업사이클 할 의복의 내부와 외부의 구조를 파악하고 패턴 치수를 모두 확인하여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의복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안감, 심지, 패드와 같은 제작공법에서 만들어진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각도로 새로운 조형 이미지를 표현할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캔버스 스티칭의 스티치는 모두 수작업으로 하였고 크래프트적인 작업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디자인과 업사이클 구성요소가 적합하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러므로, 제시한 작품은 환경성은 물론이고 독창성, 심미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 셋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업사이클 패션디자인의 핵심은 아이템의 디자인 재구성 방법 및 기법의 독특한 적용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디자인 표현 기법으로는 캔버스 스티칭을 차용하였고, 크래프트적 표현에서 느껴지는 예술적인 심미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업사이클에 충실하면서도 심미성 높은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었다. 넷째, 패션산업에서 대두되는 환경문제를 숙지하고,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

있어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의식을 부각시키고 사회·윤리적 관점의 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의류의 생산과 순환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재고 의류와 버려질 위기에 있는 의류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업사이클 표현 방법을 응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와 윤리적 패션디자인 영역에 크래프트적인 기법인 캔버스 스티칭을 접목시켜 기법의 활용을 확대시키고자 하였고, 재킷의 해체와 재조합을 통해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캔버스 스티칭 기법은 업사이클 디자인을 위한 중요한 디자인 방법론으로 학문적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대 패션산업계에서 업사이클링 패션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실천적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더 이상 선택의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업사이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 패션산업계에 중요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업사이클의 구조적 재조합에 머무르지 않고 크래프트적인 미적 가치를 지닌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All star winner, Pat Guzik now retailing on stacy.com. (2021, February 26) *Redress Design Award*. Retrieved August 15, 2022, from <https://www.redressdesignaward.com/news/2021/2/26/all-star-winning-collection-on-sustainable-platform>
- Atelierandrepairs. (2019, May 27). No rules. Just common sense. *Instagram*. Retrieved June 24, 2022, from <https://www.instagram.com/p/Bx-AvcKlr7t/>
- Choi, M. S. (2012). A study on characteristic of up-cycling design.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3(5), 551-561.
- Gabardi, C. S. (2021, August 17). 7 Zero waste designers who are just killing it. *Eluxe Magazine*. Retrieved August 21,

- 2022, from <https://eluxemagazine.com/fashion/zero-waste-designers/>
- Handibrand. (n.d.). Kit large plastic canvas bag with 300gr pandoro cord yarn. *handibrand.gr*. Retrieved February 21, 2019, from <https://handibrand.gr/en/001980>
- Hong, M. J. (2020). *A study on the design of handbags using image characteristics of Mark Rothko's color abstract: Focusing on plastic-canvas stitch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ong, Y. M., & Kim, Y. J. (2014). A study on the attitud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toward upcycle fashion produc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Design Culture*, 20(2), 207-218.
- Kim, S. H. (2021a). *Zero-waste fashion design based on an eco-friendly paradigm: A focus on the utiliza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pants (Go, trousers) in the Joseon Dynas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Y. J. (2021b). *A study on upcycling fashion design using the components of a sui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ook, H.-S. (2014). *Sustainable zero waste fashion design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isure Arts. (1997). *Plastic canvas stitch dictionary*. Arkansas: Leisure Arts.
- Martain, P. A. (2022, March 18). Meet Kevin Germanier, the designer behind the most explosive collection of Fashion Week. *Vogue*. Retrieved August 30, 2022, from <https://www.vogue.fr/fashion/article/kevin-germanier-interview/amp>
- Martinez, J. (2019, March 4). Martin Margiela sale a subasta en Paris. *Fashion United*. Retrieved September 20, 2022, from <https://fashionunited.es/noticias/moda/martin-margiela-sale-a-subasta-en-paris/2019030429682>
- Oh, Y. (2015).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upcycling fashion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Park, S. H. (2022, September 14). 그렉 로렌으로 보는 New 그린지 룩 [New grunge look as Greg Lauren]. *패션아포카토*. Retrieved September 30, 2022, from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90210580002704?did=kk>
- Projectcece. (n.d.). *Store: Fitolojio workshop*. Retrieved July 20, 2022, from <https://www.projectcece.com/catalog/store/fitolojio-workshop/>
- Rozas, A. C. (2018, February 4). Victor&Rolf lanza colaboración con Zalando. *Fashion United*. Retrieved September 17, 2022, from <http://fashionunited.es/noticias/moda/victor-rolf-lanza-colaboracion-con-zalando/2018020425432>
- Shu, L., & Choi, Y. (2021). Development of upcycle fashion design: analysis of the Re;code brand.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30(5), 803-817. doi:10.593/kjhe.2021.30.5. 803
- Shin, C. H., & Kim, J.-S. (2018). Characteristic of upcycle design in modern fashion.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23(2), 97-106. doi:10.21326/ksdt.2018.23.2.009
- Thomas, K. (2020). Cultures of sustainability in the fashion industry. *Fashion Theory*, 24(5), 715 - 742. doi:10.1080/1362704X.2018.1532737
- Yu, H., & Chun, J. (2020). A study on upcycle fashion desig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nd techniqu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and Textiles*, 44(5), 984-1003.

Development of Upcycling Fashion Design Using Canvas Stitching

Hong, Moon Jung · Park, Sun Hee⁺

Ph.D.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As crisis awareness regard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source depletion is magnified,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various industrial wastes and wastes easily thrown away in our daily lives are being caused.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became the essential practice subject to be resolved by the society. As awareness regarding the environment increases, wastes are recognized as resources that are in the process of circulation rather than an object of simple disposal and researches on recycling are carried out actively in various fields. Not only are the fashion industry manufacturing diverse harmful environmental substances by industrial steps due to the nature of trend but also wastes thrown away before use account for significant quantity.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design methods and expressive techniques for the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that increase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resources by studying up-cycling which is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on the rise. First of all, to exactly identify what an upcycle is, the concepts, types and features of upcycle, and cases of up-cycling fashion design were examined as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of up-cycling. As an upcycle method of clothing structure, it was focused on disassembly and recombination. For the expressive technique of design, the study borrowed 'Canvas Stitching' and investigated definition of the technique, stitch types and features, cases of designs utilizing canvas stitching and the intention was to express artistic aesthetic applying the technique. This resear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ethodological classification into formative and aesthetic elements regarding how to maximize utilization of upcycle, limiting to stocked clothing and discarded textiles. Therefore, it is deemed that the implication of original designs and new techniques can promote practical circular value system which is emerging recently.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the implication that experimental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s regarding the expressive technique of design can be a useful strategy in terms of upcycle fashion design.

Key words : upcycling fashion design,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canvas stitching, deadstock clothes, fabric waste

